

## 水

### 제 1 부

#### 1

찌는 듯이 무더운 7월 초순 어느 날 해질 무렵, S골목의 전셋집에 방 한 칸을 빌려 하숙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자기 방에서 거리로 나와 약간 망설이는 듯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K다리 쪽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다행히 집을 나올 때 계단에서 안주인과 마주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그의 방은 5층집 꼭대기 다락방이었는데, 그것은 방이라기보다 벽장 같은 곳이었다. 그는 주인집에서 식사뿐 아니라 하녀도 빌리고 있었으며, 그 안주인의 방은 그의 방에서 한 층 아래 있었으므로 집 밖으로 나가려면 언제나 계단 쪽을 향해 활짝 열려 있는 주인네 부엌 옆을 지나야만 했다. 그럴 때마다 청년은 병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곤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가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몹시 부끄럽게 생각돼 눈살을 찌푸렸다. 실은 하숙비가 잔뜩 밀려 있어서 안주인을 만날까봐 몹시 겁이 났던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도 원래는 그렇게 위축되고 비뚤어진 청년은 아니었다. 오히려 겁쟁이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얼마 전부터 그는

신경과민 비슷한, 화를 잘 내는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사람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고 있었다. 따라서 안주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와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가난에 쪼들리고 있었지만 요즘에 와서는 이 절박한 사정도 통 괴로워하지 않게 되었다. 꼭 해야만 하는 매일 매일의 일도 그는 내버려두고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안주인 같은 여자가 무슨 꿍꿍이속을 가지고 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계단에서 마주치게 되는 날이면 또 쓸데없는 수다를 늘어놓거나 그 귀찮은 하숙비 독촉으로 위협과 애원을 퍼부을 것이 뻔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도 뭐라고 말대꾸를 해야 되니, 변명을 하든지 꿈무니를 빼든지 하기보다는 이렇게 고양이처럼 슬그머니 빠져나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 상책이었다.

그러나 무사히 거리로 빠져나오자 그는 하숙비 때문에 안주인을 그토록 두려워한 자신이 무척 우스꽝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런 큰 일을 단행하려고 생각하면서, 이런 하찮은 일에 겁을 먹다니!’ 그는 야릇한 미소를 입가에 띠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음…… 그렇다! 인간의 힘으로 못할 일은 하나도 없는데, 그저 겁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다…… 이걸 절대적인 진리지…… 그런데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대체 무엇일까? 새로운 한 걸음, 새로운 자기 자신의 말, 이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지…… 그걸 그렇다 치고 난 지나치게 중얼거린다. 이렇게 너무 지껄이기만 하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거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지껄이기만 하는 것일까? 이렇게 중얼거리는 버릇이 생긴 것도 내가 요 한 달 동안 늘 방구석에 드러누워서…… 꿈 같은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걸 또 그렇다 치고, 지금 난 왜 이렇게 어정거리고 있을까? 정말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 일은 진실한 것일까? 췌! 진실이라고? 진실은 거녕 이걸 부질없는 망상에 불과해! 그냥 장난에 지나지 않아! 그렇다. 이걸